

영국 은석원(Coventry University 석사과정)

인간을 위한, 인간미 없는 첨단과학의 실험실들

대형 카메라와 장노출로 날카로움 포착한 에드가 마틴스



Astronaut dressing room where the Solid Rocket Boosters are stored, Yuri 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 (Star City, Russian Federation), Coventry @ Edgar Martins, The Wapping Project Bankside

영국 런던에 위치한 더 와핑 프로젝트 뱅크사이드(The Wapping Project Bankside)에서 에드가 마틴스(Edgar Martins)의 <The Rehearsal of Space & the Poetic Impossibility to Manage the Infinite> 전시가 지난 4월25일부터 5월29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에드가 마틴스의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난 20여년 동안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각 나라의 우주탐사훈련센터, 위성실, 점장지 연구실, 로봇공학 연구실 등을 찾아다니며 기록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작가는 8×10인치 대형 카메라를 이용해 약 1시간 이상씩 장시간 노출을 주는 방식으로 날카롭고 강렬한 색감과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었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로 느슨해진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삶의 본질적 요소를 무영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사실과 거짓 사이에서 관찰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



Columbus Training Simulator, ESA, EADS/Coleman, Germany, Coventry @ Edgar Martins, The Wapping Project Bankside



Mock-up for the Vega Launcher, seen from underneath, ESA, European Space Agency, French Guiana, Coventry @ Edgar Martins, The Wapping Project Bank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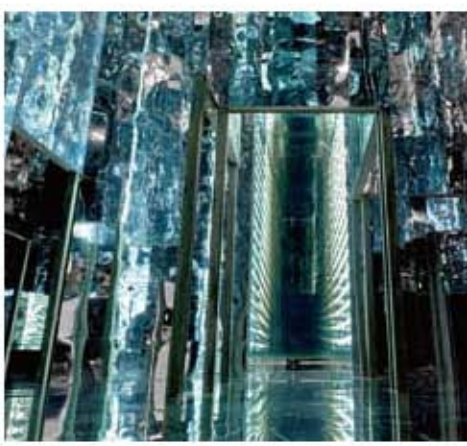
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사건에 대해 더욱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더 와핑 프로젝트 뱅크사이드에서 전시된 작품들은 대형 프린트와 디아섹 액자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런던 전시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프랑스의 낭트,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코임부라, 영국의 물버햄튼,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루를 돌며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1977년 포르투갈 에보라에서 태어난 에드가 마틴스는 중국 마카오에서 성장했으며, 1996년 영국으로 건너와 영국왕립대학교 순수미술과 사진을 전공했다. 최근에 열린 54회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해 PS1 MoMA(뉴욕), the Centre Culturel Calouste Gulbenkian(파리),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 CAM(리스본), The New Art Gallery(와식, 영국), The Gallery of Photography(더블린, 아일랜드) 등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이콘 갤러리 50주년 기념전으로 한국작가 이불 개인전 개최



Lee Beon, 2013, Photo Kim Be-yeon, Coventry @ Studio Lee Beon/Icon

영국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버밍햄에 위치한 아이콘 갤러리(Icon Gallery)에서 오는 9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예술가 중 한명인 이불의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개인전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불의 개인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지만, 무엇보다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갤러리 중 하나인 아이콘 갤러리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한국작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도 커다란 화제를 불러 모으는 중이다. 이번 전시는 아이콘 갤러리의 디렉터인 조나단 왓킨스(Jonathan Watkins)이기 때문이다. 조나단 왓킨스는 지난 1999년부터 아이콘 갤러리의 디렉터를 맡아 수많은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와 치존헤일 갤러리 등에서도 전시 기획자로 일했다. 시드니 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도 활동하며 국제무대에도 잘 알려진 조나단 왓킨스가 기획하는 이번 전시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며, 향후 이불 작가의 영국에서의 작품활동에도 기대를 높인다. 이처럼 영국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이불은 이번 개인전에서 조각, 설치, 드로잉 작품을 비롯해 작업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1964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난 이불은 1987년 홍익대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꾸준히 명성을 쌓아왔다.



Wa Negative (interior detail), 2012, View of Lee Beon's exhibition, Madsen Luxembourg, 2013-2014, Photo Rems Vilaggi